

Pamiry

2018 7월~9월 vol.22

피플 - 접지팀 미쉘 드 퀴코
열흘간의 출장을 이야기하다
힐링로드 : 오키나와
펫티켓 Petiette



고객의 꿈이 만들면 명품이라

All About Printing

고객의 꿈을 인쇄하는
대한민국 인쇄 1위 팩컴코리아

팩컴은 품질, 가격, 납기 만족을 넘어
고객의 생각과 꿈을 인쇄하여
고객의 가치를 최상으로 구현한다는
고객 가치 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ONE STOP TOTAL PRINTING SERVICE **FOR THE BEST, BY THE BEST!**

팩컴은 One-stop Printing Solution을 제공하는 글로벌기업으로서 전통의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최첨단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전세계 어디에서나 고객이 원하는 품질의 인쇄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Total Graphic Solution Provider로 세계시장을 상대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과 창조적 가치를 추구하여, 지속적 혁신을 모색하고 있는 젊은 기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2 8층 (정자동 젤존타워2) | TEL : 031-718-3666 | FAX:031-718-5857

Pacom

Pacom AAP

Book make

CONTENTS



- | | | |
|----|-------|-----------------------|
| 02 | 피플 | 미쉘 드 퀴코 |
| 03 | 가족의편지 | 정순이 사원 |
| 04 | 겟잇뷰티 | 선크림 집중탐구 |
| 06 | 칭찬릴레이 | |
| 07 | 꿀팁창고 | 벌레에 물렸을때 대처법 |
| 08 | 현장르포 | 열흘간의 출장을 이야기하다 |
| 11 | 공감 | 청포도 - 이육사 |
| 12 | 페스티벌 | 무더위를 피해 떠나는 이색 피서지 |
| 14 | 무비토크 | 한국 공포 영화 |
| 16 | 힐링로드 | 오키나와 |
| 19 | 상식톡톡 | 펫티켓 |
| 20 | 건강튼튼 | 영양제, 잘 알아보고 챙겨야 약이 된다 |
| 22 | 찰칵소리 | |
| 24 | 팩컴뉴스 | |

PEOPLE

Michelle D. Quico

안녕하세요 B&F 사업본부 접지팀 [미셸 드 퀴코]입니다.



팩컴 1층 접지에 가면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는 어여쁜 친구가 한 명 있다. 그녀의 이름은 Michelle D. Quico (미셸 드 퀴코). 그녀에게 인터뷰에 쓸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숨어서 살짝 거울을 들여다보고 오는 모습이 예쁘고 끊임없이 느껴졌다. 아직 미셸의 한국말이 서툴기에 인터뷰는 다소 느리게 진행되지만 밝은 분위기로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는 미셸의 모습을 오래도록 볼 수 있었기에 즐겁고 보람찬 시간이기도 했다.

미셸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또 여기에 와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야기 해 주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왔어요. 5년 전 남편과 결혼하면서 한국에 오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화장품 케이스 만드는 공장에 다녔었는데요, 이곳 팩컴에 오게 된 지는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팩컴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가요?

저는 여기 일이 참 재미있어요.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것도 재미있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즐겁고요. 여기 사람들은 서로 친하고, 또 모두 제게 친절하게 잘 대해 줘서 좋아요.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뭘까요?

엄마, 아빠를 포함한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어요. 전 4남매인데요, 언니와 동생들도 늘 보고 싶답니다. 사실 전화로 통화도 하고, 가끔 가서 보기도 하는데도 늘 엄마가 그리워요. 특히 아프거나 할 때는 엄마가 등을 토닥여 주며 저를 돌봐주던 기억이 나고, 그러면 너무 많이 보고 싶어져요.

일이 끝난 오후나 주말에는 뭘 하며 지내요?

제일 친한 친구도 마침 한국에 와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나서 함께 놀기도 하고, 남편과 쇼핑을 하기도 해요. 한국은 예쁜 옷이나 화장품 등이 많아서, 쇼핑하고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팩컴에서 계속 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이도 갖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말도 열심히 배워서 지금보다 더 잘 말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쇼핑을 하거나 밖에 있다 보면 한국 음식도 많이 사 먹게 될 텐데, 한국 음식 중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나요?

다 맛있지만, 전 특히 김치찌개하고 삼겹살을 좋아해요. 집에서 자주 해 먹기도 하고, 때로는 밖에서 사 먹기도 하는데 한국 음식은 조금 매워도 맛있어서 잘 먹는 편이에요.



한국어가 많이 어려워서 아직 한참 더 배워야 한다는 미셸의 눈이 반짝였다. 무엇든 잘 해 낼 것만 같은 아무진 모습이면서도, 동시에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 할 때는 한없이 여린 모습이 엿보였다. 그래도 얼마 전 남편과 결혼 5주년이었다며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미셸의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다.

필리핀과 한국 생활은 어떻게 다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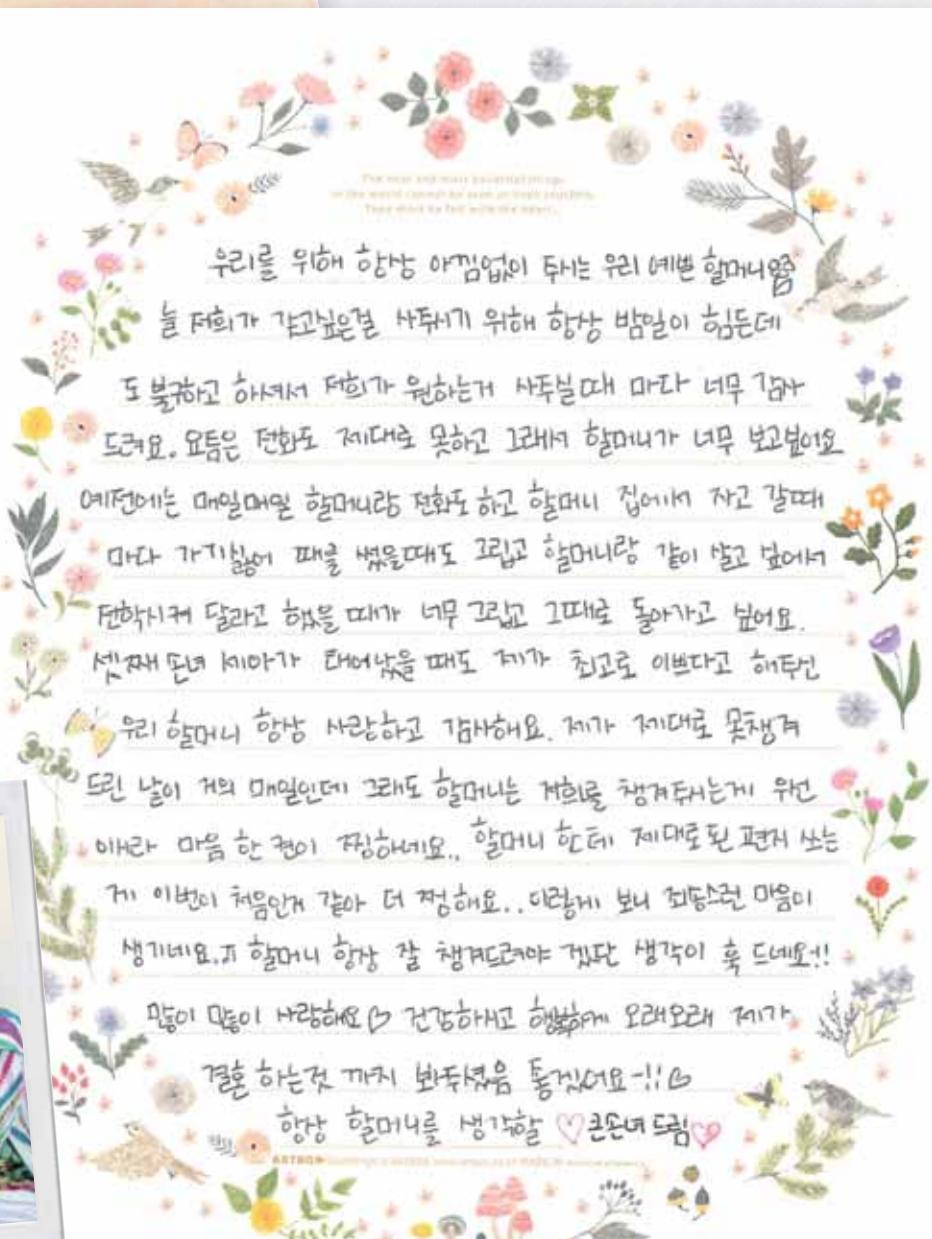
필리핀에서는 친구가 참 많았어요. 제가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늘 친구들과 잘 어울렸지요. 한국에 와서는 사실 말이 서툴잖아요. 수다쟁이인 제가 말을 많이 못 하다 보니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지금도 계속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아직도 많이 어렵네요.

우리 한국은 미셸의 제2의 고향이 되어 가지고 있을 것이며, 팩컴도 이제는 그녀 삶의 일부분이 되어 가고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미셸이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꾸려갈 수 있길 바라 보며, 그녀의 눈에 비치는 한국이 더 멋진 곳이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도 가져 보았다. 봉원미



B&F 사업본부 정순이 사원

가족의 편지





태양의 계절 여름!

선크림 집중탐구

태양이 쟁쟁,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이 왔다. 여름철 피부 케어의 기본 중 기본은 자외선 차단! 특히나 환경오염으로 오존층이 나날이 파괴되면서 자외선 차단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혹시 귀찮다고 선크림 바르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는 것을 습관화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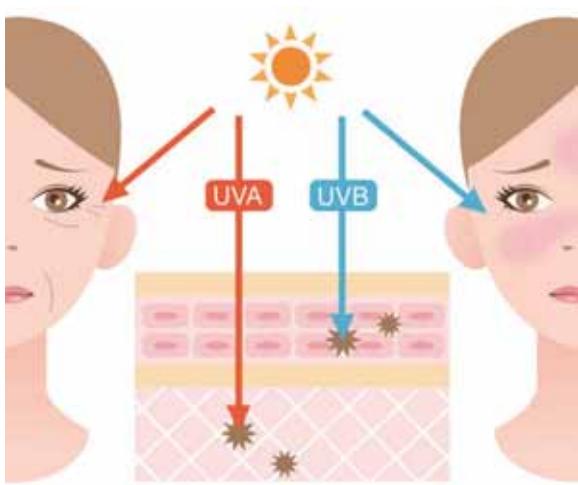
이 사진은 30년 가까이 트럭을 운전한 69세 트럭 기사의 사진이다. 그의 얼굴 왼쪽과 오른쪽의 모습이 확연히 다른 이유는 운전석 왼쪽 창문을 통해 들어온 자외선에, 얼굴 왼쪽이 지속적으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1.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

선크림은 태양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광선 중 UVA(자외선A)와 UVB(자외선B)를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크림이다. 이 자외선들은 세포 속 DNA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암을 일으키는 돌연변이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발라 피부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2. 선크림 제대로 바르기

1. 최소 외출 30분 전에는 발라 줘야 효과가 있다.
2. 선크림의 정량은 검지 두 마디 가득. 꼭 정량을 지켜서 발라 주어야 선크림이 피부 위를 촘촘하게 덮어서 자외선을 차단시킬 수 있다.
3. 피부에 톡톡 두드려 펴 발라준다. 피부에 균일하게 도포한다는 생각으로 두드려 바른다. 특히 무기자차는 소량씩 겹쳐 발라야 백탁이 적다.
4. 2~3시간에 한 번씩 덧바른다.



3. UVA(자외선A)

피부 투과율이 높아 피부 깊숙이 영향을 미치며, 한 마디로 노화의 주범이다.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해 기미와 주근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실내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

4. UVB(자외선B)

피부 투과율은 낮지만 에너지가 높아서 단시간에 피부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여름 시즌 중 가장 더운 낮 시간에 침투하며, 심한 경우에는 피부암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5. SPF 지수란?

Sun Protection Factor (태양광 차단 지수) 자외선 UVB에 대한 차단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려 주는 표기법으로, 자외선 차단의 '강도'가 아닌 '지속 시간'을 뜻하는 용어이다.

SPF 1당 약 15분의 차단 지속 시간을 지니며, 시중에 판매되는 선크림의 SPF 지수로는 SPF 15, SPF 30, SPF 50, SPF 100 등이 있다. 이 중 흔히 찾을 수 있으며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것은 주로 SPF 30과 50 제품이다. 다만 SPF 숫자가 차단 지속 시간과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SPF30과 SPF50의 차단률은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이론상 2~3시간마다 덧발라줘야 한다.

8. 선크림의 종류

성분에 따라 무기자차 / 유기자차 / 혼합자차로 나누게 된다. 성분표를 확인했을 때 가장 앞에 위치한 주성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장점		단점	주성분
무기자차	차단 범위가 넓고 자극이 적은 편 보송보송함	대체로 백탁이 심하고 건조함, 화장이 밀림 모공을 막을 수 있음	티타늄디옥사이드 징크옥사이드
유기자차	사용감이 부드러움 백탁이 없음 바르기 편함	번들거림 차단 과정에서 열, 자극 발생 우려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혼합자차	적당한 백탁에 적당한 사용감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의 중간	

6. PA 지수란?

자외선 UVA에 대한 차단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PA의 단위는 플러스(+)로 표기하게 되며, 이 플러스의 개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높다. 1등급은 PA+, 2등급은 PA++, 3등급은 PA+++로 표시한다. 작년부터는 UVA 차단 최고 지수가 4등급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흔치는 않지만 PA++++ 제품까지도 출시되고 있다.

9. 활동에 따른 알맞은 선크림

활동	SPF	PA
실내활동	10 전후	+ 이상
간단한 실외 활동	10~30	++
스포츠 등 야외 활동	30	++ 이상
등산, 해수욕 등 장시간 자외선 노출	50 이상	+++
야외 물놀이	내수성 또는 지속 내수성 표시 제품	

7.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1. 맑은 날에만 바른다?

✗ 맑은 날은 물론이거니와, 흐리거나 이슬비가 내리는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한다. 피부는 날씨와는 상관없이 항상 자외선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지표면의 물방울이 반사되어 의외로 더 강력한 자외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 입술에는 바르지 않는다?

✗ 다른 피부와 마찬가지로 입술 역시 자외선에 취약하다. 입술에는 자외선 차단이 포함된 립밤 등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입술에 바른 자외선 차단제는 말하고, 먹고, 마시는 동안 금세 없어지기 쉬우므로, 다른 신체부위보다 더욱 자주 발라 주는 것이 좋다.

10. 선크림의 유통기한

모든 화장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으며, 이는 선크림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개봉하기 전의 유통기한은 약 2~3년 정도이다. 하지만 뚜껑을 여는 시점부터는 약 6개월 ~1년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선크림은 공기와 접촉할수록 본래의 성질이 변하게 되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지난 제품은 다른 것으로 바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사용 기간이 남았더라도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제형이 몽글몽글 뭉쳐서 분리된다면 즉시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김은영

고래도 춤 추게 하는

칭 / 찬 / 릴 / 레 / 이



해외영업부 한혜옥 차장님

원부자재 연결로 항상 바쁜 와중에도 용지 샘플 요청이나 다른 자잘한 부탁들을 드리면 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조용하시면서도 성실하시고 거기에 친절하시기까지!! 심지어 미남이기까지 하시죠. 다만 한 가지, 제가 미안한 마음이 덜 들게끔 조금만 살을 찌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웃음)



관리본부 물류팀 주재은님

저와 같은 빼빼로 체형이시지만 항상 몸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생산 관련 여러 가지 일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준비하십니다. 생산 라인 각 파트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시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부산사투리 억양 속에 숨어있는 따뜻한 마음까지! 요즘 말로 촌데레 매력님이십니다!



생산관리부 진행팀 김희수 차장님

그야말로 이 칭찬 릴레이 코너에 딱 어울리는 분이시죠. 업무 관련 늘 세심하게 체크하시고 잘 정리해 주시는 덕에, 일을 진행함에 있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친절은 기본이시고요. 만형과 같은 든든함이 느껴져 늘 마음의 의지가 되고, 믿음이 가는 분입니다. 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Prepress 사업부 서무광 과장님

칭찬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지만 일단 지금 뇌리에 딱 떠오른 분인, 이정우 대리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기에 추천하는 것은 절대 아니랍니다.) 아무리 고단해도 내색하지 않고 맑은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가는 모습에서 성실함이 느껴지고, 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인상에서 느껴지는 성품 그대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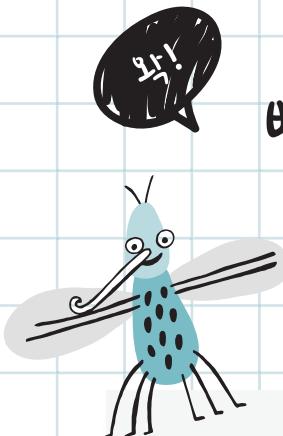
Prepress 사업부 이정우 대리님

보면 괜히 뎁달아 기분 좋아지는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류진성 과장님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직책을 떠나서 크고 작은 일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하시면서도 상대를 배려하시죠. 업무 중에도 인간미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덧붙여서 음주도 사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쪼록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즐기셨을 좋겠습니다!



인쇄사업본부 류진성 과장님

짝짝짝!! 이번 칭찬릴레이의 마지막 주인공으로는 인쇄사업본부의 류진성 과장님께서 뽑히셨습니다. 팩商会 모두가 칭찬받는 그 날까지 릴레이는 계속됩니다! 유공심



벌레에 물렸을 때 대처방법!

야외 활동이 많아진 요즘, 벌레에 물리거나 간혹 큰 벌에 아프게 쏘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가볍게 여기고 넘겼다가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불확실한 민간요법은 이제 그만! 현명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대처해 봐요!

방이면 방마다 모기에 물렸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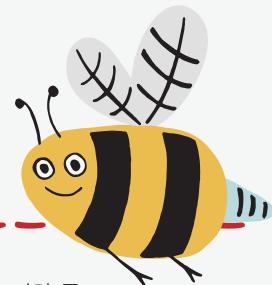
모기 물린 부위를 긁거나 침을 바르게 되면 자칫 2차 감염의 위험이 있기에 되도록 가려움을 참고, 긁지 말아야 한다. 모기에 물렸을 때에는 즉각 냉찜질과 온찜질을 해 주면 성가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냉찜질 냉찜질을 해 주면 혈관이 축소되어 붓기가 완화되고, 가려움이 진정되어 염증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 1) 흐르는 물에 물린 부위를 씻은 후에
- 2) 즉시 얼음 찜질을 해 준다.

온찜질 가려움의 원인인 모기의 침 성분(포름산)은 40~50도 정도의 열을 가하면 변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온찜질을 해 주면 가려움이 완화된다.

- 1) 티스푼을 뜨거운 물에 담근 후에
- 2) 적당히 뜨거워진 티스푼을 물린 부위에 30초 정도 갖다 댄다.



앗! 벌에 쏘였을 때!

독성이 강한 벌에 쏘였을 때에는 구토, 쇼크, 의식 저하 등 심각한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그 대처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벌침 제거 무리하게 손으로 벌침을 제거하려 하는 것보다는 긴 손톱 또는 카드 등을 이용하여 밀어내듯 벌침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소독 벌침 제거 후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알코올 솔이나 깨끗한 물로 빠르게 소독해 준다.

얼음 찜질 상처 부위를 찬 물수건이나 얼음 팩으로 찜질해 주면 좋다. 얼음 찜질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독이 흡수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어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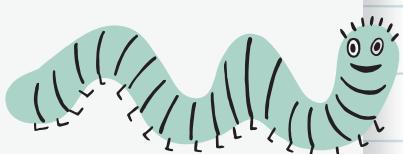
연고 바르기 벌에 쏘이게 되면 보통 통증과 가려움이 동반되는데, 이때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게 되면 통증과 가려움을 완화시켜 준다. 이러한 방법으로 응급 처치 후, 가까운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꿀팁! 녹차/오이/식초 등을 적극 활용하자!

녹차 녹차에는 진정 성분이 있기 때문에, 물린 부위에 녹차 잎이나 녹차 티백을 얹어 놓으면 붓기가 완화된다.

오이 오이에는 해독을 돋는 성분이 들어 있어, 오이를 강판에 갈아 벌레 물린 데에 얹어 놓으면 간지러움을 완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식초 식초는 살균 작용을 하며, 얇게 발라주면 간지러움을 줄여준다. **박다솜**



2018 BOOK EXPO AMERICA IN New York

'BOOK EXPO AMERICA'는 매년 세계 전역에서 1,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출판 및 인쇄에 대해 활발히 교류하는 세계 5대 대형 도서전 중 하나이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 전시회에 참여를 해 온 우리 팩컴은 올해도 어김없이 부스를 설치하고, 고객 유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다.

지나치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쉽고, 웬지 큰 출판사의 대표일 것만 같은 느낌도 들어서 최대한 많은 고객과 대화를 나눠 보고 싶었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 맞이에 나섰다. 끈임없이 팩컴에 대해 소개하고, 쉴 새 없이 만남을 이어갔다. 이것저것 까다롭게 따져 보는 고객도 있는가 하면, 악수와 친절한 웃음으로 긍정적 메시지를 주는 고객들도 분명 있었다.

새로운 고객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한 과정이 이다지도 혐난한가 싶으면서도, 동시에 현재 팩컴과 지속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수많은 거래선들을 생각해 보니 다시금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정말이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 버린 전시회 일정, 그 속에서 만난 수많은 방문객들 중 많은 이가 꼭 우리 팩컴의 고객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 뉴욕-샌프란시스코
- , 열흘 간의 출장을 이야기하다.



KLUTZ 샌프란시스코 / 뉴욕 office 방문

우리 팩컴의 큰 거래선 중 하나인 KLUTZ 뉴욕 지사와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하게 되었다. 덕분에 동부에서 서부로 6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북미 대륙을 횡단하는 긴 여정을 거치게 되었지만, 평소 이메일로만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하던 이들을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설레었다.

KLUTZ 지사에는 우리가 만들어 낸 많은 책들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벌써 2019년을 계획하고 있는 KLUTZ의 모습도 함께 엿볼 수 있어 더욱 고무적이었다. 또한 우리가 그간 많은 책들을 만들어 내고 또 선적했었지만, 우리가 만들지 않은 책들이 더 많이 있었던 점도 인상 깊은 부분 중 하나였다. 보다 적극적으로 오더를 따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미팅이 계속되었으며, 그간 작업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것들뿐 아니라 신규 작업에 대한 계획들 역시 많이 나눌 수 있었다. 정기적 방문과 적극적 영업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한 KLUTZ는 차기 프로젝트로 계획 중인 여러 아이템들을 우리에게 공

유해 주었다. 돌아가면 소싱해야 할 숙제들은 한 가득이었지만, 유의미하고 알찬 시간이었기에 발걸음은 가볍고 즐거웠다.





MRS. GROSSMAN 사 방문

십 여 년 전 팩컴의 큰 거래선 중 하나였던 MRS. GROSSMAN을 기억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앨범으로 많은 물량의 수출 실적을 담당했지만, 어느 순간 거래가 중단되고 연락이 끊어진 거래선이다. 이번 미국 출장 직전 우연찮게 MRS. GROSSMAN의 담당자와 연락이 달았고, 미팅 약속을 잡을 수 있었다.

스티커를 주로 제작하고 생산하는 업체라 작고 아기자기할 것이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크나큰 오산이었다. 공장의 크기와 설비가 일반 책자를 생산해 내는 인쇄 설비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이곳에서 생산해 내는 스티커의 종류와 그 양은 정말이지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오랫동안 거래가 끊었던 거래처여서 그간 쌓인 이야기도, 나눌 이야기도 많았으며 그간 MRS. GROSSMAN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차분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전 일했던 담당자는 모두 퇴직한 상태였기에 우리는 팩컴과 팩컴의 제품을 소개하고, 다시금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했다. 비록 이번 방문이 첫 걸음이었지만, 앞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접촉을 통해 다시 한 번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장을 마치며,

이로써 기나긴 북소 일정 및 고객사 방문 일정들이 마무리되었다. 31명의 고객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고, 3곳의 거래선을 방문하였으며, 동부에서 서부를 오가는 바쁜 일정이 단숨에 지나간 셈이었다.

이번 출장은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생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일정이었던 것 같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좀 더 명확하게 고찰해 볼 수 있

었기에 매우 보람찬 기억으로 남았다. 이번에 만나고 온 많은 고객들의 얼굴을 다시 한 번 떠올리며, 이번 출장이 보다 가치 있는 결과로 남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봉원미**

청포도

| 이 육사 |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뜻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 靑砲를 입고 찾아 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면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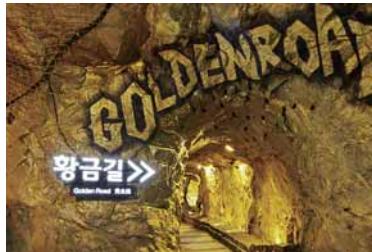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세계가 놀란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

무더위를 피해 떠나는 이색 피서지



광명동굴은 1972년 폐광 후 40여 년 간 새우젓 창고로 쓰이다가 지난 2011년 광명시가 매입해 관광 명소로 개발했다. 동굴 내부의 평균 기온은 12°C로 유지되며, 서늘한 바람이 잠시 무더위를 잊게 해 준다. 특히 입구에 위치한 바람길은 광명동굴에서도 가장 시원한 장소! 시원한 바람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음악회가 열리는 동굴 예술의 전당, 시공간 여행을 빛과 구멍으로 표현한 웜홀 광장, 아쿠아 월드, 황금의 방, 신비의 용 '동굴의 제왕', 광부 샘물, 와인 동굴, 새우젓 창고 등의 볼거리가 가득하다.

관람 시간 : 매주 월요일 휴관 / 09:00~18:00 (마지막 입장시간 17:00)

입장료 : 어른 6,000원 / 청소년 3,500원 / 어린이 2,000원

주차비 : 일반 3,000원 / 경차 1,500원

TIP!

1. 동굴 안에 화장실이 없다. 전체를 다 구경하려면 1시간 정도 소요되니 미리 다녀 오기!
2. 동굴 내부 온도는 평균 12도. 추위를 많이 탄다면 얇은 겉옷을챙겨가자.
3. 동굴 내부에는 물을 제외한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4. 제3주차장은 주차비가 무료이다. 대신 광명동굴까지의 거리가 꽤 되므로 코끼리 열차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주차 정산 시 코끼리 열차 티켓을 제시하면 된다. 코끼리 열차 티켓가격은 어른 2,000원 / 청소년, 어린이 1,000원이다.

움직이는 전시회

동대문 라뜰리에



라뜰리에(L'atelier)는 인상주의의 상징 '빛(Light)'과 당시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의미하는 '아뜰리에(Atelier)'의 합성어로, 그림 속에 들어가 빛의 화가들과 교감하고 즐기는 체험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저 단순한 그림 전시가 아닌, 명화 속 장면을 세트로 재현해 내 관람객이 직접 명화 속 공간을 경험하게 하는 일명 '아트랙티브 테마파크'인 것이다. 라뜰리에 입장할 시 나눠 주는 'L'atelier TAG(RFID 목걸이)'를 착용하고, 내부를 거닐면 이를 인식한 명화 속 인물들이 대화를 건넨다. 내가 누군지, 지금 어느 위치에서 말하고 있는지 등과 관련된 정보가 체험 공간 곳곳에 있는 명화 속 인물들에게 전달되며, 각 체험자마다 맞춤형 대화가 가능하다. 김은영

관람 시간 : 연중무휴 / 오전 10시 ~ 오후 9시 (오후 7시 입장 마감)

전시 위치 : 동대문 현대 시티 아울렛 11층

1호선 – 동대문역 8번출구 / 2,4,5호선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4번출구

입장료 : 어른 24,000원 / 청소년 20,000원 / 어린이 16,000원 / 만 36개월 미만 무료

TIP!

1. 문화의 날은 40% 할인!
2. 미디어 아트쇼 / 훌로그램 토크쇼 / 뮤지컬 이렇게 세 개의 스페셜 어트랙션 있다.
각각 입장 인원에 제한이 있으며, 선착순 마감이므로 공연 시간표를 확인 후
미리 줄을 서는 것이 좋다.





장화홍련

요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수미와 수연. 돌아온 집에 서는 아빠와 새엄마가 자매를 맞이해 주지만 언니 수미는 유독 동생 수연을 구박하는 새엄마에게서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새엄마와 갈등을 겪게 되고 이런 새엄마는 점점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집 안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간다. 이러한 가운데, 집안 곳곳에서는 괴이한 일들이 잇달아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나라의 공포 영화 중에서도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장화홍련’. 2003년에 개봉하여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명작 공포 영화이다. 수미와 새엄마의 대립 구도로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밝혀지는 진실과, 중간중간 공포심을 자극하는 영화 분위기를 보면 왜 아직도 명성이 자자한 영화인지 알 수 있다. 보통 무서운 영화들은 스토리 전개 부분에 있어 개연성 등이 조금 아쉬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장화홍련’은 스토리 전개 부분에 있어서도 들통한데다가, 공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예쁜 영상미까지 갖춘 팔방미인 영화라는 사실!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한다.



곤지암

인터넷 방송을 위해 공포 체험을 지원한 7명이 곤지암 정신병원에 들어가 방송을 생중계를 하는데.. 그들은 아무도 열어보지 못 했다는 병원의 402호와 관련된 괴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위험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그런 주인공들에게 기이하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최근에 개봉한 공포 영화이기도 하며 실제 CNN에서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선정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 정신병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참고로 현재는 병원을 모두 철거해 빈 터만 남아있다.) 꽤 많은 분들이 곤지암에 대한 여러 소문과 괴담들을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 그래서인지 영화 '곤지암'은 개봉 전부터 그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 실제 배우들이 액션 캠을 착용하고, 직접 촬영한 장면들이 주로 사용되어 한층 더 리얼리티를 살린 영화 '곤지암'. 영화는 곤지암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인 전반부와, 병원에 들어가 본격적인 공포 체험을 시작하는 후반부로 나누어 지는데, 개인적으로 후반부부터 무서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 영화 개봉 후 병원이 절거되어 아쉬움이 다소 있지만, 실제 존재하는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란 사실만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영화이다.



기담

1942년 경성의 안생병원.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다른 인물들이 겪게 되는 3가지의 기묘한 이야기..

2007년에 개봉한 '기담'은 한 배경에 3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옴니버스 형식 영화다. 첫 번째. 여고생 시신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낀 의대생의 이야기. 어떻게 시신을 보면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반전이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이야기는 차 사고로 인하여 엄마와 새아빠를 모두 잃고 병원에 실려온 한 아이와 그 아이의 주변에서 떠도는 엄마 귀신의 이야기다. 영화 '기담'에서 제일 무서운 장면으로 손꼽히는 엄마 귀신이 등장하는 에피소드. 마지막 이야기는 의사 부부의 이야기인데 남편은 평소와 마찬가지인 하루를 보내던 중 아내가 귀신임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를 모른 척하며 지내는데, 그 뒤로 일어나는 의문의 사건들을 다룬 이야기이다. 영화가 진행되는 중간중간, 세 이야기의 연결고리가 되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해서 더욱 더 영화에 몰입하기가 수월하다. 비록 장르가 공포일지라도 모두 사랑이라는 주제와 연관되어 있어 더 흥미로웠다. 덧붙여 영화 '기담'의 감독인 정범식 감독은 앞서 소개했던 영화 '곤지암'의 감독이기도 하다는 사실. 소개된 두 영화 모두 공포 연출이 탁월하므로, 비교하며 감상하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박다솔**



H E A L I N G R O A D

오·카·나·와

동양의 하와이, 따뜻한 휴양지, 렌터카는 필수. 오키나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다. 그러나 나의 여행 스타일은 그와는 정 반대인 나홀로 뚜벅이족에 (여행 한정) 지치지 않는 체력을 자랑하고 소핑센터나 대도시보다는 역사 유적지나 자연 경관 등을 선호하는, 다소 재미없는 수학여행 스타일이다. 혹자는 힐링로드가 아닌 칠링로드라고 부르던 나의 좌충우돌 오키나와 초행길 중, 남부 및 북부의 여행지 두 곳을 골라 소개하겠다.

오키나와 본섬 북부의 랜드마크인 츄라우미 수족관은 해양박공원의 일부 시설이다. ‘아름다운 바다’라는 이름을 지닌 이 수족관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세계 최초로 복수 번식에 성공하였다는 고

래상어일 것이다. 나의 발이 되어 줄 투어 버스의 출발 시간이 터미널에서 오전 8시였던 것은 정말이지 고역이었지만, TV로만 보던 고래상어를 가까이서 만나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공연히 마음이 설레었다. 나름 성수기여서일까.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보였고, 정신은 다소 없었으며 내부는 어두운 편이었다. 4층에서 시작해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특이해지는 생김새의 물고기들을 감상하는 재미는 있었어도 내심 좀 실망하려던 찰나 눈앞에 장관이 펼쳐졌다.

자그마치 7,500m³의 용량을 자랑하는 커다란 수조는 그 이름처럼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는 열대 바다를 통째로 옮겨

놓은 듯했고, 거대한 만타가오리와 그보다도 더욱 거대한 고래상어가 내부를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이 수조 안에는 고래상어 세 마리가 있어야 하지만 내가 방문하였을 시에는 두 마리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한 마리의 크기가 아직 작아 해상 가두리에서 몸집을 불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츄라우미에 있는 고래상어의 몸길이는 8.7m로 최대 크기에 못 미치는 미성숙 개체지만, 세계 최대라는 만타가오리가 작게 보일 정도에다 고리지느러미만 해도 사람만 했다. 수조 바로 옆에는 카페테리아가 있어 고래상어를 감상하며 요리를 할 수 있었는데, 수조 바로 옆 특등석은 이미 발 빠르게 예약되어 있어 앉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이른 시간이라 운 좋게 나를 괜찮은 자



츄라우미 수족관



리를 선점했다. 기다란 틈으로 엿보이는 고래상어를 보고 있자니, 꼭 바다 속에서 식사를 하는 것만 같은 낭만적인 기분이 들었다.(음식 맛은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다. 혹시 방문하게 된다면 타코 라이스는 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오키나와 본섬 남부에 있는 평화 기념 공원이다. 해안을 끈 언덕배기에서 널리 내려다보이는 짙푸른 태평양의 빛깔이 아름답기 그지없었지만, 사실 이곳은 2차 대전 당시 오키나와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이며, 패전에 억울함을 품은 사람들이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그 슬픔에 스스로 몸을 던지던 장소이기도 했다. 부채꼴 모양

의 공원은 꽤 넓었고, 수목원처럼 조경도 잘 되어 있어 언뜻 평범하고 경치 좋은 공원처럼 보였다. 그러나 공원 바로 뒤쪽에는 일제의 만주 침략 때부터 오키나와 전투까지 희생된 20만 명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검은색 위령비가 줄지어서 있었다. 이 '평화의 초석'은 구역 별로 나누어 앞에서 크게 중간 부분에는 일본 각지에서 희생된 이들의 이름이, 오른쪽 부분에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이름이, 왼쪽은 연합군, 대만인 등 외국어로 된 낯선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식이었다. 여기에는 물론 일제강점기 때 이곳으로 끌려와 사망한 한국 국적 조선인 231명과 북한 국적 조선인 82명의 이름도 새겨져 있다.





오키나와는 본디 류큐 왕국으로 존속하다가 일제에 의해 전쟁 기지화 되었으며, 류큐 원주민들 역시 전쟁 인력으로 동원 및 희생된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개인적으로 전범국인 일본이 부르짖는 평화는 위선이라고 생각하며 일본 다른 곳의 평화공원에는 쾌웃음을 쳤던 나지만, 과거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지닌 오키나와여서였을까. 평화의 초석과 거기에 새겨진 이름들은 묵직하게 내 가슴에 다가왔다. 음각으로 새겨진 이름들을 보고 있자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안타깝게 희생된 우리 조상들의 삶이 더욱 한스럽게 느껴졌다. 또한 이곳 한 컨에는 한국인 위령비도 설치되어 있는데, 전국 8도에서 가져온 돌로 둥글게 조성되어 있다. 바닥의 화살표는 한반도 쪽을 가리키며, 조상들의 영혼이 길을 혜매지 않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온

꽃을 헌화하고 묵념하면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꼼꼼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허울 좋은 명분 아래 희생된 여러 어린 삶들의 명복을 기렸다.

이렇듯 오키나와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광만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이면에 아픔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를 딛고 일어선 곳 이기에 더욱 아름다운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다시금 오키나와에 가고 싶어졌는데 하고픈 것, 가고픈 곳이 참 많았지만 기동력과 짧은 일정 탓에 미처 실행에 옮기지 못 해 지금 돌이켜보면 못내 아쉬울 따름이다. 다음에는 꼭 여름을 피해서, 필수적으로 차를 가지고, 좋은 사람과 함께!! 구석구석을 누비며, 더욱 만끽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배수민

1 반려인

- 1) 외출 시 산책 줄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공공 장소에서는 2m 이내 산책 줄을 사용해 주세요. 혹여 반려동물의 공격 성향이 강하다면, 산책 줄에 눈에 잘 띠는 노란 리본을 달아 다른 시민의 접근을 막아 주는 편이 좋습니다.
- 2) 외출 시 배변 봉투를 반드시 챙깁니다.
- 3)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내부가 가려진 전용 가방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 4) 반려견이 불안/흥분 상태일 경우, 최대한 조용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 5) 다른 개나 사람과 접촉할 시 상대방(견주)의 동의를 먼저 구합니다.

우리 모두 펫티켓을
지키자옹♥

2 반려동물

- 1) 동물 등록과 인식표는 필수입니다.
- 2)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던 경험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입마개를 필수로 착용해 주세요.
- 3) 사람을 향해 함부로 뛰어 오르지 않도록 교육해 주세요.
- 4)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개들에게도 적절한 사회화와 매너 교육이 필요합니다. 요즘엔 온라인 유튜브 강좌, 반려동물과 주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 등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추세이니,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방치하지 말고 꼭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 5) 반려견에게 사회화란?
개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람, 동물, 환경, 상황에 대한 좋은 기억이 필요하답니다. 반려견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세요.

3 시민

- 1) 타인의 반려견을 함부로 만지지 말아 주세요!! 특히 손을 개의 머리 위로 옮겨서 만지려고 하면, 자칫 개가 자신을 때리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견주에게 혹시 개를 만져도 괜찮은지를 먼저 물어봐 주세요.
- 2) 양해를 구했다면, 천천히 다가가서 손등 냄새를 맡게 해 주세요. 개가 귀를 뒤로 젖히고 꼬리를 흔든다면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표현입니다. 그 때는 턱을 쓰다듬는 정도로 만져 주시면 좋습니다. 머리를 만지는 것은 견주 정도로 친밀한 상대에게만 허용되므로 초면에는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3) 큰 소리를 내지 말아 주세요.
- 4) 너무 빤히 바라보지 말아 주세요. 개들에게 눈 마주침은 도전적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 5) 산책 줄에 노란 리본을 매단 개들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개들입니다. 절대로 만지시면 안 돼요.



반려동물과 반려인,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펫티켓 Petiquette!

바야흐로 반려동물 천만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의 친구 반려동물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에티켓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박미선

종합 비타민, 오메가3 등 그 종류도 다양한 건강 기능 식품들..
어떤 영양제를 함께 먹고, 또 언제 먹는 게 내 몸에 가장 좋을까?

영양제, 잘 알아보고 챙겨야 약이 됩니다!

아침식사 전 비타민B

비타민B는 몸의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하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후 섭취한 음식물이 에너지로 전환되게끔 돋는 역할도 하고 있으니, 아침에 드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아침식사 중 비타민C+셀레늄+철분

비타민C는 체내에서 항산화 역할을 하며, 인체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 산소로부터 몸을 지켜 주는 대표 비타민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몸 속에 각종 활성 산소가 쌓이게 되는데, 이럴 때 아침에 비타민C를 섭취하면 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공복에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되도록 아침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C와 철분을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 주는데, 여기에 셀레늄 성분도 함께 복용한다면, 피 속 철분이 산화하면서 떨어지는 산소 운반 기능을 셀레늄이 돋게 되므로 항산화 기능을 더욱 높여 줍니다. 영양제를 따로 챙겨 드시는 게 번거롭다면, 비타민B, C와 셀레늄, 철분이 모두 함유된 종합 비타민제를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식사 후 루테인

루테인은 눈 속 황반 구성 성분 중 하나입니다. 황반은 망막 내 시상세포가 밀집된 곳이며, 시각 기능을 유지합니다. 황반 구성 성분인 루테인이 노화에 따라 감소하게 되면 눈이 침침해지거나, 망막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보다 눈이 침침해졌다고 느껴진다면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루테인은 지용성 영양소로, 식사 직후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답니다.

점심식사 전 홍삼

홍삼에는 면역력 강화나 각종 질환 예방에 도움되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공복에 복용할 때 체내 흡수가 더 잘 되며, 점심 식사 전에 먹으면 오후에 찾아오는 단골 손님인 식곤증이나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점심식사 후 오메가3+비타민E +코엔자임Q10

오메가3지방산은 혈액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며, 혈관 속 혈전이 적게 생기도록 하여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 예방에 좋은 성분입니다. 오메가3지방산은 지용성 영양소로, 식사 후에 복용해야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 오메가3지방산을 복용하면 간혹 메스꺼움 등의 증

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이나 아침에 비해 몸의 움직임이 많아 소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점심 식사 후에 오메가3지방산을 드시면, 메스꺼움 증상이 다소 완화되어 편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비타민E와 코엔자임Q10은 세포의 노화를 막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좋은 성분입니다. 특히 오메가3와 함께 복용하면 지방산이 쉽게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어 항산화 작용을 지속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저녁식사 후 칼슘+마그네슘+비타민D

뼈를 튼튼하게 해 주는 칼슘은 위산이 충분히 있어야 흡수율이 증가되므로, 식후에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칼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므로 저녁 식사 후에 먹으면 휴식을 취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D를 같이 복용하게 되면 칼슘의 흡수를 돋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개선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D는 칼슘과 함께 신경 전도와 근육 수축, 혈액 응고에 관여해 뼈와 치아 구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인데, 요즘엔 시중에 이 세 가지 영양소가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이 많이 나와 있어 간편한 섭취가 가능합니다.



함께 섭취하면 안되는!

칼슘+클로렐라 No!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섭취하는 클로렐라(스피루리나)는 칼슘의 흡수를 줄이고, 배출시킨다고 하니 주의해서 섭취 하셔야 합니다.

철분+타닌 No!

철분제를 복용 중이라면 타닌이 들어간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타닌은 철분의 체내 흡수를 막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타닌은 주로 홍차, 녹차, 와인, 포도, 연근, 도토리묵 등 떫은 맛을 내는 음식에 들어 있습니다.

아스피린+오메가3 지방산 No!

오메가3와 아스피린 모두 피를 끓게 하기 때문에, 함께 먹을 경우 지혈 작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복용 전 의사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항생제+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분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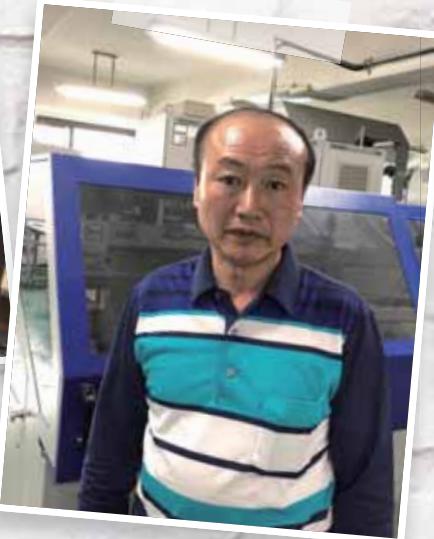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분 등의 무기질은 항생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항생제의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 복용 전 의사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박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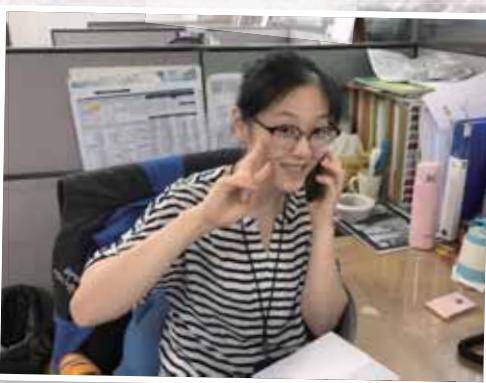


찰칵소리

E semii@gopacom.com

재밌고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다면 언제든 보내 주세요!





PACOM NEWS



팩컴코리아㈜ 금년 2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

6월 22일 금요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 기업(G-PASS기업)으로 선정된 팩컴코리아㈜를 비롯, 19개 기업에게 지정서를 수여하는 수여식이 있었다.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은 조달물품의 품질, 기술력 등이 우수한 국내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중소, 중견기업으로, 이번 유망기업 지정은 팩컴코리아㈜에 있어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금번 신규 지정된 20개 기업 중 10개 사는 우수제품 지정업체, 3개 사는 해외 인증 또는 국제 특허 2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팩컴코리아㈜를 위시로 기술력 있는 국내 우수 조달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팩컴코리아㈜ 영유아 백팩 10,000개 나눔 후원

지난 2018년 5월 15일 화요일, 팩컴코리아㈜는 국제구호개발 NGO단체인 굿피플과 협력하여 3억 원 상당의 영유아 백팩 10,000개 나눔 후원에 참여했다. 이는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대표이사의 경영 철학을 실천하는 것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나눔이었다. 굿피플은 소외 이웃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기업 및 단체와 함께 아름다운 나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직원 자녀 결혼을 축하합니다

지난 4월 15일 일요일, B&F사업본부 중 철팀 윤창미 사원의 자녀 임호완 군이 신부 최수영 양과 화촉을 밝히게 되었다. 식은 여의도 웨딩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 훌에서 진행되었고, 주례 없이 신랑 아버지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었다.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준비한 장미꽃 인사와 참석한 B&F의 많은 직원들의 축복 속에서 예식이 마무리되었다.



지난 5월 5일 토요일, 인쇄사업본부의 최현준 사원의 자녀 최호 군과 신부 김은정 양의 결혼식이 있었다. 식은 TM웨딩시티 베네치아 훌에서 많은 하객과 직원들의 축복 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사회를 본 사

촌동생이 신랑 최호 군을 많이 아끼던 할머니의 편지를 대신 읽어주었는데, 비록 할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지만 훈훈한 편지의 내용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창고 B동 공사 완료

옥외 출고 대기 중 날씨에 관계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제품을 보관 및 출고 하기 위해 창고 B동을 새로이 설치하였다.



근로자의 날

지난 5월 2일 수요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회사에서는 점심 특식을 제공 하였다.



PACOM NEWS

6월 1일 월례조회

지난 6월 1일 금요일, 월례조회에서는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Clean PACOM' 활동에 대한 한국표준협회 서천범 위원의 강연이 있었다. 앞으로 10월까지 전개될 제조 공정 표준화 작업이 많은 기대를 모이고 있다.



6월 1일 특별상 : 윤영봉 대리

지난 6월 1일 금요일 월례조회에서는 PREPRESS사업부의 윤영봉 대리가 품질 이상 상황을 발견하고 고객에게 알림으로써, 품질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이에 공로로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입사를 축하합니다

팩컴AAP(주)는 지난 3월 31일 토요일, 안산공장이 군포공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새롭게 4층 일부를 현장으로 리모델링하였다. 또한 현장 조직을 일부 개편하여 제본 사업본부를 B&F사업본부로 변경하였으며, 특수가공팀 등 팀이 확장되었다. 익숙한 얼굴도, 새로운 얼굴도 많이 보이며 모두가 팩컴 가족으로써 계속 함께하게 되었다.

상단 좌측부터 순서대로 권기형 부장, 박범우 과장, 구유순 과장, 문순희, 정우영, 김영환, 목문수, 이진웅, 나카가와메구미, 령티가인, 구기순, 김종열, 황정자, 흥영심, 김병환, 김성곤, 이미선, 데오맘포 칼로리나멘도자, 권용숙, 한수정, 이서현, 윤명순, 이기자, 김성민 대리. 이원성





[북메이크]

단 한권의 책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

북메이크는 “대한민국 1위 인쇄 수출 기업” 팩컴의 소량 인쇄 제작 서비스 브랜드로,
2008년 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자가 되는 그날까지 책 1권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서비스 가치를 실현하고자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팩컴코리아 www.gopacom.com | 북메이크 www.bookmake.co.kr | 문의 : 1577-3669